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KNO 국립
극원
KOREA NATIONAL
OPERA & BALLETS
오페라단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국립오페라단 제작

I Vespri Siciliani

G. Verdi /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10. 25 Fri. 19:30 - 26 Sat. 15:00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KNO
국립
KOREA NATIONAL
OPERA COMPANY
오페라단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국립오페라단 제작

I Vespri Siciliani

G. Verdi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10. 25 Fri. 19:30 - 26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국립오페라단 제작

I Vespri Siciliani

G. Verdi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10. 25(금) 7:30pm - 26(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I Vespri Siciliani

G. Verdi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개요

작곡 주세페 베르디, 1813-1901

대본 샤를르 뒤베이리에, 외젠 스크리브

원작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알베공작》

초연 1855. 6. 26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극장

형식 5막

언어 이탈리아어(한글/영문 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단장 최상호

지휘 세바스티안 랑 레싱

연출 파비오 체레사

출연진

엘레나 Sop. 이화영, 홍주영

아리고 Ten. 김경호, 윤정수

몽포르테 Bar. 이동환, 노동용

프로치다 Bass 권영명

베티 Bass 최공석

보드몽 Bass 박익현

니네타 M.Sop. 김세린

다니엘리 Ten. 강성빈

테발도 Ten. 박세진

로베르토 Bar. 정제학

만프레도 Ten. 윤찬영

코리아콥오케스트라

노이오페라코러스

코드공일아트랩

INFORMATION

Composer Giuseppe Verdi, 1813-1901

Librettist Charles Duveyrier, Eugene Scribe

Original Gaetano Donizetti 'Le duc d'Albe'

Premiere 26th Jun. 1855, Teatro Regio, Parma

Form 5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per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General Director Choi Sangho

Conductor Sebastian Lang Lessing

Director Fabio Ceresa

CAST

Elena Sop. Lee Hwayoung, Hong Michelle Juyoung

Arrigo Ten. Kim Kyungho, Yun Jungsoo

Montforte Bar. Lee Donghwan, Noh Dongyong

Procida Bass Kwon Young

Bethune Bass Choi Kongseok

Vaudemont Bass Park Euihyun

Ninette M.Sop. Kim Saelin

Danieli Ten. Kang Seongbin

Tebaldo Ten. Park Sejin

Roberto Bar. Jung Jehak

Manfredo Ten. Yoon Chanyung

Korea Coop Orchestra

Noi Opera Chorus

CODE 01 ART LAB

Contents

목차

Greetings	04	인사말
Composer	06	작곡가 소개
Korea National Opera	07	국립오페라단 소개
Synopsis	08	줄거리 소개
Exposition of I Vespri Siciliani	10	작품 소개
Director' Note	15	연출의 글
Scenic Design	17	무대디자인
Costume Design	18	의상디자인
Creative Team	20	제작진
Cast	25	출연진 및 출연단체
Production Staff	34	프로덕션 스태프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관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최고의 오페라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페라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네 번째 작품으로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초청한 주세페 베르디의 역작 오페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중세 시대 팔레르모에서 일어난 프랑스의 압제자들에 대한 반란을 다룬 이야기로, ‘시칠리아 섬의 만종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간 사이의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프랑스풍 그랜드 오페라이며, 서곡은 오페라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담아내어 베르디 오페라 서곡 중 가장 장대하고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2022년 국립오페라단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초연하여 호평받은 작품을 이번 축제에서 다시 한번 만나 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구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국립오페라단 최상호 단장님을 비롯한 국립오페라단 직원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출연진 여러분, 지휘자 세바스티안 랑 레싱과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 등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국립오페라단의 끈끈한 소통과 교류는 대한민국 오페라 제작 및 발전에 큰 힘이 되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매년 개최하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오페라 저변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합과 평화를 향한 가슴 뭉클한 작품을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함께 선보입니다.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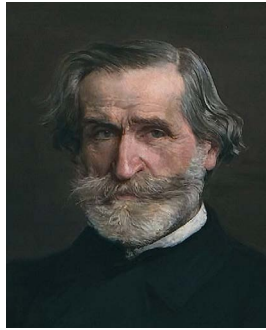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는 국립오페라단이 202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당시에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평과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대구 관객분들께 저희가 공들여 준비한 작품을 다시 한번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낯설게 느끼실 관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칠리아 섬을 연상케하는 상큼한 오렌지와 하늘색으로 먼저 시선을 빼앗기고 애국심을 자극하는 가슴 뭉클한 음악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작품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합과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담긴 이야기이기에 애정마저 쏟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벗들이여’와 같이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아리아가 많아 해외에서도 자주 무대에 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훌륭히 소화할 수 있는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하기에 주옥같은 아리아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길 희망합니다.

주세페 베르디 1813-1901 *Giuseppe, Verdi*



이탈리아 파르마현의 레론콜레에서 1813년 10월 10일 태어난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1813-1901)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한 작곡가이다.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곡가로서 로시니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하고, 훗날 푸치니에게 그것을 계승하였다. 어린 시절 베르디는 음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834년 자신의 후원자이자 후일에 장인이름이 되는 안토니오 바레치 덕분에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1836년 베르디는 후원자의 딸 마르게리타 바레치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3월 딸 비르지니아가, 그다음 해 7월 아들 이치리오가 태어났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마르게리타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된다. 2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의 초연마저 실패하자 베르디는 작곡에 대한 열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암울한 절망의 시기에 그를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은 라 스칼라극장의 감독이자 그에게 첫 계약을 성사시켜 준 바르톨로메오 메렐리였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와 꾸준한 부추김 덕에 베르디는 그의 명성을 이탈리아 밖까지 날리게 한 첫 오페라 <나부코(1842)>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4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오스트리아의 압제 아래 있던 이탈리아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압도적인 감동을 이끌었다. 또한 베르디는 <나부코>의 초연에서 주역을 맡았던 가수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새로운 사랑에 빠졌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원조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금기를 열 수 있었다.

베르디의 작품은 성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기반으로 화려한 기교의 아리아와 남성미 넘치는 합창 등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작품 속 중심에 ‘휴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야 했던 개인적인 삶의 아픔에 기인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에 관심 가지고 야망, 탐욕, 시기, 사랑, 질투, 충성 등 인간 심리를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주로 통속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루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속적 사랑의 갈등 등 누구나 삶의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거장으로 우뚝 선 베르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동시에 가장 높은 명성을 누리며 일생을 보냈다. <오베르토>, <나부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는 1901년 1월 27일 호텔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87세로 생을 마쳤다.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밀라노 거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20만 명의 대군중들이 함께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오페라, 모두를 위한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1962년 창단 / 2000년 재단법인 독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오페라단으로서 국내 오페라 발전을 선도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오페라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오페라 최고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국내 성악가와 무대 관련 스태프를 발굴 및 양성하는 등 한국 문화예술계의 모태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다.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출연자 선정을 위해 정기적인 오디션을 개최하여, 공신력을 갖춘 국립예술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공연되지만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시리즈로 기획,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우수 극장과의 공동제작 및 교환공연을 통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오페라를 제작, 우수 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예술가와 콘텐츠를 한데 모으는 글로벌 오페라 허브로 발돋움해갈 것이다.

국민 모두에게 다가가는 오페라단이 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전국적으로 풍요로운 오페라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해당 지역 교육 프로그램 확충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페라가 자주 개최되지 힘든 지방 중소도시 및 도서 산간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등 문화확산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작 여건이 열악한 지역극장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제작역량을 끌어올리고,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 문화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1막

시칠리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인들이 팔레르모 대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길을 지나던 시칠리아 공녀 엘레나에게 노래를 불러보라며 희롱한다. 엘레나는 분노를 참으며 시칠리아 인의 용기있는 항거를 부추기는 노래를 부른다. 적개심에 불탄 군중이 프랑스군에게 대항하려 할 때 프랑스 총독 몽포르테가 등장해 군중에게 강제 해산을 명한다. 반역죄로 감금되었다 풀려난 아리고가 나타나자 엘레나는 놀라워하고 아리고는 폭군의 의도와 달리 공정한 재판으로 풀려났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지만 총독은 자신의 명령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를 향해 실소를 보낸다. 아리고의 정체가 궁금해진 총독이 이름과 집안 내력을 묻자 그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피하며 총독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다. 총독은 그의 용기에 탄복하며 프랑스를 위해 충성하면 명예와 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엘레나에 대한 아리고의 연정을 눈치챈 총독은 그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리고는 그녀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외친 뒤 반항하듯 엘레나의 궁으로 향한다.

2막

오랜 망명 생활 끝에 비밀리에 귀환한 독립투사 프로치다는 엘레나 공녀와 아리고를 만나 시칠리아가 먼저 봉기하며 결기를 보여주야 스페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식을 전한다. 둘만 남게 되자 아리고는 엘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엘레나는 오빠의 복수를 해준다면 그의 여자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이때 프랑스 군인들이 찾아와 총독궁의 무도회에 아리고를 초대한다는 총독의 전갈을 알린다. 그가 초청을 거절하자 군인들이 그를 연행하고 이에 놀란 엘레나 앞에 프로치다가 나타나 대책을 강구한다. 약혼식을 앞둔 마을 젊은이들이 축제 준비를 한다. 프로치다는 신부들의 미모에 매혹된 프랑스 군인들을 부추겨 아가씨들을 유괴하도록 한다. 약탈한 여자들을 배에 태워 총독의 관저에서 열릴 무도회에 데려가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시칠리아 인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된다. 프로치다와 엘레나는 시칠리아 남성들의 방관을 비난하며 그들의 분노와 수치심을 복돋운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고 무도회에서 총독을 죽이고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운다.

3막

총독 관저 서재에서 몽포르테는 예전에 자신을 떠난 여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를 읽고 고뇌에 빠진다. 그 편지에는 반프랑스파 젊은이 아리고가 그의 아들임을 밝힌 내용이 적혀있다. 이때 부하들에게 연행되어 도착한 아리고는 총독의 호의에 당황한다. 총독이 보여준 편지를 읽은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몽포르테 총독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마음,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적이 친부였다는 충격이 얽혀 자신에게 찾아온 잔혹한 운명을 저주하며 부자 관계를 거부하고 뛰쳐나간다. 가면 무도회장에서 총독 제거 음모의 가담자들이 비밀표시로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다. 프로치다가 아리고의 가슴에도 리본을 달아준다. 아리고는 조국애와 연인에 대한 사랑, 부정을 그리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총독이 아리고에게 다가오자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는 무도회장을 떠나라고 경고하지만 낄새를 찬 총독은 아리고의 가슴에 달린 리본을 떼어내 버리며 네 몸에 흐르는 프랑스의 피를 부정하지 말라고 단언한다. 이를 신호로 엘레나를 비롯한 비밀 저항군들이 총독을 암살하기 위해 접근하지만 아리고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보호한다. 이를 틈타 총독은 프랑스 군을 불러 가슴에 리본을 단 자들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한다. 상황이 역전되어 시칠리아 독립 투사들은 모두 붙잡히고 총독과 프랑스인들은 불의한 음모를 밝혀 그들을 구했다며 아리고를 크게 치하한다. 아리고는 동지를 배신했다는 치욕감에 어쩔 줄 몰라하고 시칠리아인들은 배신을 저지른 아리고를 경멸하면서 프랑스 군인들에게 끌려 나간다.

4막

아리고는 특별히 허가를 받아 엘레나와 동지들이 갇힌 감옥을 방문한다. 감옥에서 나온 엘레나는 그를 비열한 배신자라 경멸하지만 아리고가 출생의 비밀을 밝히며 용서를 빌자, 그녀의 마음도 연민이 앞서며 그를 용서하게 되고 둘은 화해한다. 프로치다가 끌려 나오자 총독이 나타나 엘레나를 비롯해 프랑스에 항거한 시칠리아인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한다. 총독은 아리고가 자비를 구하며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모두 용서해주겠다고 회유한다. 엘레나와 프로치다는 불명예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자 그는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한다. 교회의 합창 소리가 점점 커지며 엘레나와 프로치다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아리고는 그들을 따르려고 하나 프랑스 군인들이 막아선다. 처형대에 서 있는 엘레나의 모습에 그의 결심은 무너지고 결국 총독을 향해 아버지라고 외친다. 총독은 바로 사면을 단행하고 아리고와 엘레나의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선언한다. 모두들 기뻐하지만, 독립을 열망하는 프로치다는 결혼식을 기회로 복수할 것을 결심한다.

5막

교회가 보이는 총독 관저 정원 하객들이 엘레나와 아리고의 결혼을 축하한다. 신부 차림의 엘레나가 등장해 하객들로부터 꽃을 선물 받는다. 아리고가 다가와 엘레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고 아리고는 총독을 맞이하러 관저안으로 들어간다. 프로치다가 엘레나에게 접근해서 적의 경계가 허술해진 지금이야말로 좋은 기회라며 결혼식의 종소리를 신호로 프랑스인들을 학살하고 봉기하겠다는 계획을 알린다. 아리고가 그녀를 결혼식장에 인도하려 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엘레나는 머뭇거린다. 이 때 총독이 수하들과 등장해 두 사람의 결혼이야말로 양 진영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결혼식을 알리는 종을 울리기를 명한다. 황급히 엘레나가 위기를 알리지만 이미 무기를 든 시칠리아인들이 사방에서 복수를 외치며 몰려와 총독과 프랑스인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피의 대참사가 벌어진다.

베르디 중기(中期)를 개막한 역사와 픽션의 파노라마,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음악·무용 칼럼니스트 유형 중

주세페 베르디(1813-1901)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작곡가로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타일의 변화와 원숙미를 더해간 대가 중의 대가다. 이중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1855)는 여러모로 특이한 작품이다. 시기적으로 베르디의 초기에서 원숙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작품이요,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 파리 관객을 위해 작곡했으며, 베르디 오페라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담고 있어서 2022년에야 우리나라에서 초연(국립오페라단)되었을 정도로 자주 공연되는 인기작은 아니다. 게다가 어두운 역사적 사건에 입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닌데다가 극의 전개와 관련된 등장인물은 픽션이요, 결말은 너무나 순식간에 마무리된다. 그것도 참혹하게!

파리 오페라 극장의 의뢰로 만든 프랑스식 오페라

이탈리아는 16세기말 오페라 장르가 탄생한 이래 변함없이 그 창작의 중심에 있었지만 19세기 세계 최대의 공연시장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프랑스 파리였다. 19세기 전반기의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를 대표하는 조아키노 로시니, 빈첸초 벨리니,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모두 한창 전성기에 파리로 진출한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아무리 이탈리아 오페라가 인기였다고 해도 프랑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장인 파리 오페라와 그 쿼터 높은 관객들은 자코모 마이에베어로 대표되는 프랑스 스타일의 ‘그랑도페라(grand opéra)’를 절대적으로 선호했다. ‘그랑도페라’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본은 프랑스어이고, 음악적으로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연극적 대사 대신 이탈리아 오페라처럼 오케스트라 반주가 딸린 레치타치보를 사용한다. 드라마의 배경은 역사적 사건에서 취재한 비극이 대부분이고 그에 어울리는 장대한 무대장치를 수반한다. 통상 5막 구성(이탈리아 오페라는 3막)이며, 18세기까지 성행했던 프랑스 궁정 오페라의 전통이자 시각 효과를 중시하는 프랑스 관객의 취향이 반영된 발레 장면을 삽입하고, 군중 합창을 중시한다.

세 번째 작품인 <나부코>(1842) 이후 연이은 대성공으로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의 자리를 차지한 베르디는 파리에 일시 체류 중이던 1852년 봄에 파리 오페라와 신작 오페라를 쓰기로 계약을 맺는다. 첫 파리 만국박람회가 열리는 1855년에 초연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본작가 외젠 스크리브 혹은 그에 준하는 작가가 쓴 4막이나 5막의 대본을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19세기의 만국박람회는 20세기의 올림픽에 준하는 가장 큰 범세계적 행사였으니 이를 기념해 가장 유명한 작곡가의 오페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치 1988년 서울 올림픽 기념으로 잔 카를로 메노티의 <시집가는 날>이 공연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베르디는 스크리브가 보낸 여러 대본 중에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선택했다. 1282년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난 프랑스인 집단 살해사건을 다룬 역사극이어서 프랑스의 수도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용으로는 어쩐지 어울려 보이지 않지만, 훗날 이집트 카이로 극장의 의뢰로 작곡한 <아이다>에서도 이집트 공주의 연적인 에티오피아 공주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연 베르디다운 유별난 선택인 것 같다. 스크리브의 프랑스어 대본에 맞게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또한 프랑스식 그랑도페라로 작곡되었다. 1855년 6월의 파리 오페라 초연은 상당한 성공이었다.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였던 엑토르 베를리오즈는 이 공연을 관람한 후 “베르디의 이전 작품보다 뚜렷하게 드러나는 군주다운 위엄을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이탈리아 파르마 극장에서 <조반나 데 구즈만>이라고 제목과 등장인물의 이름을 바꿔 이탈리아어로 공연되었다. 지금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라는 원래 제목을 사용하되 이탈리아어로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리지널 프랑스어판으로 무대에 올리는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구체적 줄거리는 픽션

드라마의 역사적 배경은 1282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부활절 기간에 벌어진 처절한 피의 살인극이다. 당시 시칠리아는 얼마 전까지의 통치세력이었던 신성로마제국의 호엔슈타우펜 가문을 몰아낸 프랑스계 앙주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교황의 지지를 받는 앙주 가문은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세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시칠리아를 착취하고 있었다. 이에 동로마제국은 물론 시칠리아를 탐내고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연합 왕국이 시칠리아 사람들을 획책하여 앙주 정권에 대한 반란 분위기를 조성했다. 드디어 3월 30일 저녁기도의 종소리가 시칠리아 최대의 도시 팔레르모에 울려 퍼진 것을 신호로 시칠리아인들의 프랑스인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피지배계층이 외국인 지배계층을 공격한 것이다. 급격히 세를 불린 반란 세력은 2주 만에 섬의 절반 이상을, 6주 후에는 이탈리아 반도와 인접한 항구도시 메시나를 제외한 시칠리아 전역을 장악했고, 그사이 희생당한 프랑스인은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수천 명에 달했다. 반란 세력은 로마 교황청에 시칠리아의 자유민 지위를 요청했으나 신성로마제국을 경계한 교황 측은 앙주 왕가의 복위를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아라곤 연합왕국이 함대를 파견해 그 왕과 호엔슈타우펜 가문 출신의 왕비가 시칠리아의 공동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아라곤 세력과 교황의 지지를 받는 앙주 세력이 20년 가까이 전쟁을 벌인다.

이제 오페라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펴보자. 이전 통치자인 호엔슈타우펜 가문의 엘레나(소프라노)는 자기 오빠를 죽인 앙주 가문 측의 총독 몽포르테(바리톤)에게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지만 공녀로서 형식적인 예우는 받고 있다. 엘레나는 반프랑스 세력을 이끄는 젊은 리더 아리고(테너)를 사랑하는데, 아라곤에 망명했다가 돌아온 독립투사 프로치다는 부활절 축제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폭동을 일으키자며 엘레나와 아리고를 꼬드긴다. 그러던 중 아리고에게 문제가 생긴다. 반역자로 그를 잡아들이 총독 몽포르테가 한때 사랑했던 시칠리아 여인이 남긴 편지를 보고 아리고야말로 자신의 사생아 아들임을 알게 된 것이다. 프로치다, 엘레나와 봉기를

약속했던 아리고는 몽포르테의 애타는 부정(父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총독궁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가면을 쓴 프로치다와 엘레나가 자기 부친을 칼로 찌르려는 순간 자식의 입장에서 그들을 제지한다. 몽포르테는 아리고의 아들다운 행동에 기뻐하고 두 반역자는 체포된다. 그런데 몽포르테가 엘레나와 프로치다의 처형을 명령하자 아리고는 연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정적이나 다른 없는 몽포르테를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진다. 몽포르테는 아들을 되찾은 대가로 죄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물론 친구 세력의 화합 명분을 내세우며 아리고와 엘레나의 결혼까지 승낙한다. 엘레나와 아리고는 기꺼이 이 상황에 기뻐하지만 여전히 반란을 꾀하는 프로치다는 결혼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성당 종소리를 신호로 무장 세력 및 흥분한 시칠리아의 사람들을 획책하여 프랑스인들을 일거에 학살하는 피의 대참사극을 벌인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지만 구체적 줄거리는 픽션이다. 이는 외젠 스크리브가 이전에 썼던 오페라 대본을 배경만 바꿔 재탕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알바 공작>(1839)이라는 미완성 오페라가 있다. 16세기 후반 가톨릭의 수호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신교도의 중심지 플랑드르, 그중에서도 현재의 벨기에 북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인물구도나 극의 진행은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와 거의 동일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73년, 스페인의 폭정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플랑드르의 브뤼셀이다. 처형당한 플랑드르 독립운동의 영웅 에그몬트 백작의 딸인 여주인공 아멜리아는 마르첼로를 사랑한다. 그런데 마르첼로는 자신이 새로 파견된 스페인 국왕의 대리인이자 그들의 압제자인 알바 공작의 사생아임을 알게 된다. 아멜리아가 공작을 살해하려는 순간 마르첼로가 그들 사이에 급히 끼어들어 대신 치명상을 입는다. 그는 알바 공작에게 아멜리아를 용서할 것을 간청하면서 숨을 거둔다. 비록 피날레의 대화살 장면은 없지만 저항운동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배반의 파노라마를 다루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 공작>은 미완성 상태로 오래도록 남아 있다가 1882년에야 마테오 살비라는 작곡가에 의해 마무리되어 초연되었으므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작곡할 당시의 베르디는 재활용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또 당시로서 이런 건 크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다. 스크리브는 자신의 집필실에 조수 여럿을 두고 동시에 여러 편의 대본을 작업해야했을 정도(이 오페라의 대본가로도 스크리브 외에 샤를 뒤베이리에라는 협력자를 함께 표시)로 인기가 높았고, 그의 대본 중에 유사한 설정이 많다는 것은 당시 오페라 종사자들은 다 인지하는 사실이었다. 참고로 스크리브의 오페라 대본 중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으로는 브와엘디유의 <흰옷의 여인>, 오베르의 <포르티치의 병어리 소녀>, <프라 디아블로>, 로시니의 <오리 백작>, 마이어베어의 <악마 로베르>, <위그노 교도>, <예언자>, <아프리카의 여인>, 알레비의 <유대 여인> 등이 있다. 심지어 도니체티의 희극 <사랑의 묘약>도 스크리브의 프랑스어 대본을 이탈리아어로 번안한 것이다. 관객 입장에서 중세 시칠리아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 진실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보다는 인류 역사를 통해 여러 형태로 반복되어온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그 대립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 개인과 가족의 관계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 그 정신만큼은 아무리 높이 사더라도 피지배자의 저항이 지나친 폭력을 수반했을 때 빛어지는 희생 등이 더 중요한 메시지다. 베르디가 이 대본을 선택했을 때 공감했을 이유를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베르디 전환기의 음악

베르디 작품 목록에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는 <리골레토>(1851), <일 트로바토레>(1853), <라 트라비아타>(1853) 다음에 자리한다. <시몬 보카네그라>(1857), <가면무도회>(1859), <운명의 힘>(1862)이 그 뒤를 잇는다. 베르디 최고의 인기작들과 원숙기의 진지한 걸작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벨칸토’라는 이탈리아 특유의 ‘노래 중심’ 전통이 남아있던 시기로부터 베르디 특유의 심오한 극적 감동을 추구하는 시기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과도기적 작품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라고 할 수 있다. <리골레토>와 <라 트라비아타>가 벨칸토의 그림자 속에서 과거 양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에서는 그 거리가 한층 확고하게 벌어졌다고 하겠다. 더욱이 프랑스 오페라로 작곡해야했기에 베르디로서는 상당한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이 베르디 최고의 걸작들에 비하면 느슨한 극적 긴장감을 초래한 면도 없지 않다.

이제 이 오페라의 중요한 곡들을 살펴보자.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는 <운명의 힘>과 더불어 베르디의 가장 유명한 서곡을 갖고 있다. 극중 주요 장면의 멜로디를 메들리처럼 활용한 일명 포푸리(potpourri) 타입의 서곡이며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명곡이다. 2막에서 시칠리아로 막 돌아온 프로치다의 아리아 ‘오, 그대 팔레르모, 사랑스런 땅이여(O, tu Palermo)’는 독립투사의 귀국 감격과 투쟁 의지를 드러낸다. 3막 1장에서는 몽포르테 총독의 아리아 ‘아버지의 품에서(In braccio alle dovizie)’와 이어지는 아리고와의 이중창 ‘깊은 동정심에 끌렸을 때(Quando al mio sen per te parlava)’가 베르디 특유의 자식 사랑을 보여주는 명장면의 하나다. 첫 결혼에서 얻은 딸과 아들을 일치감치 잃은 베르디는 이 충격 탓인지 평생토록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애처로운 관계를 자신의 오페라에서 자주 다루곤 했다. 이 장면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3막 2장 총독궁의 무도회 장면에 포함된 ‘사계’는 파리 관객을 위해 작곡된 발레 음악인데 이탈리아어판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특이하게도 겨울-봄-여름-가을의 순서이며 다 합치면 꽤나 긴 곡이다. 4막에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고의 독백 ‘눈물의 날, 고통의 날(Giorno di fianto, di fier dolore)’과 이어지는 엘레나와의 사랑의 이중창이 중요하다. 이 이중창에서 아리고는 엘레나에게 자신이 몽포르테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엘레나는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마지막 5막에서는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엘레나의 ‘고맙습니다. 친구들(Merce, dilette amiche)’을 들을 수 있다. 아리고와의 결혼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곡인데 시칠리아 풍의 노래를 뜻하는 ‘시칠리아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스페인 볼레로 풍의 경쾌한 곡이다. 좀 생뚱맞은 분위기의 노래지만 시칠리아가 이탈리아는 물론 그리스와 스페인, 심지어 사라센 문화까지 함께 녹아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이 노래는 잠시 후 벌어질 피날레 학살극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면서 역설의 효과를 안겨준다. 극적, 음악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피날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져 관객들을 얼떨떨하게 만들고 여운을 느낄 틈도 없이 막을 내리기 때문이다.

파비오 체레사 연출의 개성 넘치고 완성도 높은 무대

이번 공연은 2016년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드(오페라계의 아카데미상에 해당)의 젊은 연출가상을 수상한 이탈리아의 젊은 거장 파비오 체레사가 2022년 국립오페라단의 한국 초연을 위해 연출했던 프로덕션이다. 체레사는 당시 ‘연출의 변’에서 역사극이지

만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그 행동을 추상화하는 연출 기법을 시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저항을 초래하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주목하는 동시에 억압받는 자가 억압하는 자로, 억압하는 자가 억압받는 자로 바뀌는 역할의 전복에도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막이 열리면 오렌지색과 푸른색의 열매들이 달린 하얀 나무가 무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오렌지색은 시칠리아를 상징한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유명한 합창곡도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아닌가. 옅은 푸른색은 프랑스를 상징한다. 삼색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푸른색은 그중 '자유'를 상징하지만 굳이 그것까지 연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의 통치를 받는 시칠리아를 배경으로 하므로 푸른색은 지배자의 색이요, 오렌지색은 피지배자의 색이다. 의상도 역사적 개념과 고중에 얽매이지 않고 추상화했는데, 푸른색과 오렌지색으로 두 진영을 구분한다. 참고로 이 오페라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도니체티의 <알바 공작>은 16세기 스페인 지배 하의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상징도 그 축구대표팀을 '오렌지 군단'이란 부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오렌지색 아닌가. 우연의 일치인지 연출자의 의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흥미로운 결과다. 13세기 시칠리아라는 특정한 시공간을 인류 역사에 반복된 보편적 상황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무대도 상징적으로 꾸몄다. 섬을 상징하는 듯 무대 중앙 대부분을 살짝 솟아오른 원형의 공간이 차지한 가운데 1막은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있는 정원, 2막은 파도 한가운데의 돛 달린 배, 3막은 시칠리아 지도를 연상시키는 섬, 4막은 행성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5막은 이상향을 연상시키는 낙원으로 설정했다. 오렌지색과 푸른색은 채도를 낮춰 또 하나의 지배적 색채인 흰색과 조화를 이루는데, 흰색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상징적이긴 하지만 막마다 두드러진 변화를 주었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서, 너무 긴 게 문제인 이 오페라의 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한다. 프랑스어 대본이 아닌 이탈리아어 대본을 사용하기에 베르디의 가장 긴 발레음악인 '사계'는 생략된다.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의 공연 성패는 이 작품에 숨겨진, 그러나 궁극의 주제인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의로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는 문제를 얼마나 의미 있게, 수준 높게 표현하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출자의 포부가 대단하고, 제작팀이 창의적이고, 정상급 성악가들이 최고 수준의 가창을 보장할 것이기에 대구 오페라 팬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한다.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오페라로 그리는 유토피아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

The Dramaturgical Approach

어쨌든, 반란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는 중세 시대 팔레르모에서 일어난 프랑스의 지배자들에 대한 반란을 다룬 이야기이다. 베르디의 작품에서 현재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작품의 목적이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연출적인 기법을 고심했다.

이 작품을 일상생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우리는 때론 피해자로서, 때론 집행자로서 차별의 문제를 직면한다. 차별은 반복되어 영구화되고 우리를 구분짓고 분류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성, 인종, 언어, 정치적 의견과 개인적인 조건들이 우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매우 불공평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는 사회적 역병을 초래한다.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적 근본주의 뿐만 아니라 동성애 혐오, 연령차별, 능력주의, 신체 수치심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억압세력의 우두머리인 몽포르테는 모든 재산을 누리고 그것을 타인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삼는 현대의 특권층 남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시칠리아인들은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이 순응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노예화 되는 특정한 환경에서 처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프로치다는 그의 정치적 견해에 의해 차별받고, 엘레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아리고는 고아이기에 차별받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세의 시칠리아 역사는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사이의 투쟁과 분투를 투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품 속 몇몇의 인물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보편적인 평화를 열망한다. 그것이 4막에서 몽포르테가 아리고와 엘레나의 결혼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용서에 의해 가능해 보이지만 프로치다와 같은 인물들은 그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억압받는 자를 억압하는 자로, 억압하는 자를 억압받는 자로 역할을 전복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The Scenographic Installation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리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을 만큼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최초의 인간이 문명 사회의 실질적인 창시자다. 말뚝을 뽑아버리고 토지의 경계로 파놓은 도랑을 메우며 동료 인간들을 향해 “이 사기꾼의 말을 듣지 마시오. 열매는 모두의 소유이며 땅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잇는다면 당신들은 길을 잃게 될 것이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죄악과 전쟁, 살인, 얼마나 많은 비참과 공포에서 인류를 구제해 주었을 것인가?

-장자크 루소-

모든 인간은 같은 행성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을 무대에 담고자 했다. 이 땅이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서 원주민이라는 개념도,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생각들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신적 구조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1막에서 울타리가 쳐진 정원으로, 2막에서는 파도 한가운데에 있는 배로, 3막에서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4막에서는 우주에 있는 행성으로 표현되고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가 열망해야 할 사회는 평화와 보편적 평등을 축하하며 사람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로, 서곡과 5막의 나무가 그리는 낙원임을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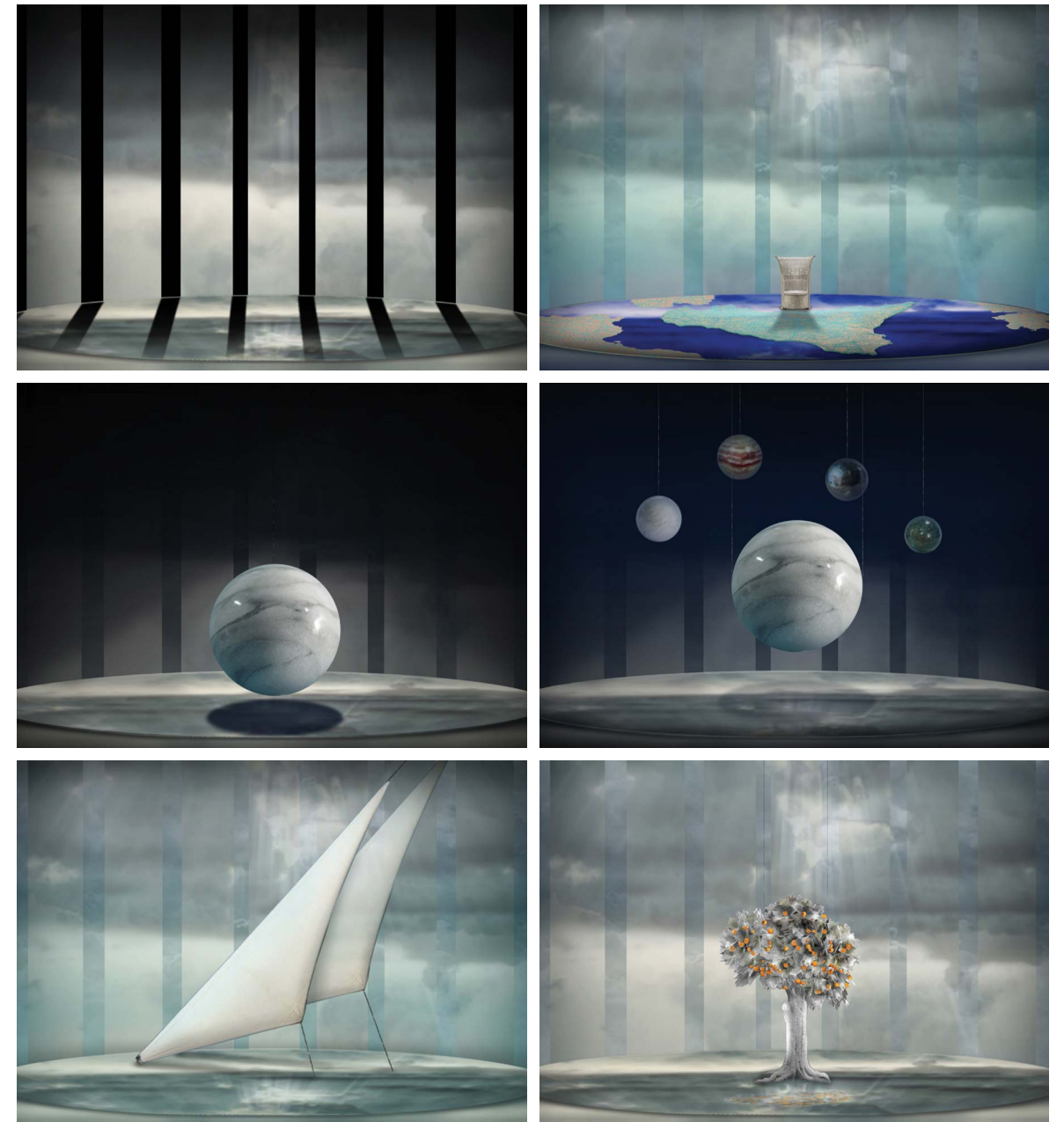
The Costume Design

불평등함이 법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것은 사실이 된 직후 권리가 되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

앞서 언급한 개념들을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상 디자인을 추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역사적인 배경을 따르거나 회상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벗어나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압제자 프랑수아인과 억압받는 이들인 시칠리아인은 각각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의상을 입게 된다. 서로 다른 색깔의 의상을 통해서 구분될 수 있고, 이 두 집단 간의 투쟁이 시각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의상 안에는 흰색 의상을 입게 된다. 모두가 품고 있는 공통의 색깔로 평화로운 유토피아에서 상호존중 속에 사는 자연상태의 인간이 가진 순수함을 나타내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낙원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모습, 그런 인간의 순수함이라는 5막의 특징적인 주제를 잘 나타낼 것이다.





Arrigo Act III



Elena Act III



Elena Act IV



Bishop Act II



Black Angel Act IV



Blue Bridge Act II



Elena Act V



Montforte Act I - III - IV



Procida Act II - III - IV - V



Blue Groom Act II



Blue Men's Choir



Captain Act II



지휘 Conductor | **세바스티안 랑 레싱** Sebastian Lang Lessing

- 베를린 페렌츠 프리차이상 수상 후, 함부르크 국립극장에서 경력 시작
- 괴츠 프리드리히의 초청으로 베를린 도이치오퍼 상주 지휘자 역임
- 파리, 스톡홀름, 오슬로, 코펜하겐,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도쿄 등 전 세계 주요 오페라하우스에서 지휘
- 프랑스 낭시 로렌 국립 오페라, 호주 태즈메이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미국 샌 안토니오 심포니 음악 감독 역임
- 멘델스존과 슈만 교향곡 전국 녹음
- 미국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Renée Fleming)과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데카(Decca) CD '길티 플래저(Guilty Pleasures)' 녹음, 전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 콘서트 지휘
- 2020년, 2021년, 2022년 국립오페라단 하반기 음악감독 역임

주요작품

<윌리엄 텔>, <마농>, <라 보엠>, <맥베스>, <일 트로바토레>,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라 트라비아타>, <장미의 기사>, <살로메>, <죽음의 도시>, <나비부인>, <파우스트>, <호프만의 이야기> 외 다수



연출 Director | **파비오 체레사** Fabio Ceresa

- 세계적인 거장으로 손꼽히는 루카 롬코니, 데보라 워너, 파트리스 세로,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 피에르 루이지 피치, 피터 슈타인, 에이문타스 네크로슈스, 리차드 존스 등의 현대 연출가들의 오페라 제작에 참여하며 밀라노의 알라 스칼라 극장에서 연출가 겸 대본가로 활동
- 조르지오 스트렐러, 프랑코 제피렐리와 장 피에르 폰넬 연출의 리바이벌 프로덕션 참여
- 2010년 이탈리아 예시에서 <나비부인>으로 데뷔
- 이탈리아 델라 발레 디트리야 페스티벌에서 로시 <오르페오>의 연출 및 드라마투르기
- 도니제티 <루덴츠의 마리아>로 아일랜드 웨스포드 페스티벌 참여 및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 2016년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드 젊은 연출가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2022년 국내 초연 <사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및 2023년 <맥베스> 연출
- 이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시즌 오프닝 <호텔로>, 2025년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파우스트>, 로마 국립오페라극장 <카르멘> 참여 예정

주요작품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극장, 팜 비치 오페라, 리투아니아 국립극장, <청교도>, 피렌체 마조 피오렌티노 극장과 토리노 레지오 극장, <오를란도 핀토 파초>, 국립오페라단 LG아트센터, <맥베스>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돈 조반니>, 상하이, <티토 황제의 자비>, 스위스 로잔 극장, 스페인 오비에도 극장, <안드레아 세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극장, <푸른 수염>, 베니스 페니체 극장 외 다수



무대 Sets Designer | **티치아노 산티** Tiziano Santi

- 이탈리아 파르마 파올로 토스키 국립예술학교, 볼로냐 국립미술원 무대디자인학과 졸업
- 밀라노 스칼라 극장 및 베로나 아레나 극장 전문과정 수료 후 무대디자이너, 창작가, 디자이너, 무대 제작소 감독 및 다수 영화의 예술감독으로도 활동
-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남아일랜드,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한국, 프랑스, 몬테카를로, 세르비아, 헝가리, 미국, 리투아니아 등지에 소개되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코지 판 투테>로 골든 마스크상 후보 지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탄생 300주년 기념 행사로 이탈리아의 공식 공연 푸치니 <일 트리티코> 무대 디자인을 담당하며 동일 작품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가 부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골든 보더상 수상
- 2006년 토리노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루카 롬코니 연출 <프로제토 도마니>의 5개 공연 무대를 기획 했으며 이 중 세 타이틀로 <UBU> 최고 무대 디자인상 수상, 이후 연출가 루카 롬코니와 다수의 연극, 오페라 작품 협업
- 2000년부터 파르마 왕립극장, 토리노 스타빌레극장, 피아첸자 시립극장, 피렌체 마조 피오렌티노 오페라극장에서 제작 감독 및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자문 활동
- 볼로냐 오페라 이탈리아나 스쿨 무대 디자인 강연 및 베네치아 IUAV 건축대학 석사 과정 강의로 후학 양성

의상 Costumes Designer | **프란체스코 본디** Francesco Bondi

-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 무대 디자인 우등 졸업
- 재학 중 2년 연속 무대 디자인 부문 국립 예술 최우수상 수상
- 이탈리아 피렌체 마조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 재직
- 2016년, 2017년 카메라타 누오바 주최 국제 경연 유럽 오페라 연출상 최종 결선 진출
- <알레구에리움> 이탈리아 알게로 아이 엠 프로젝트 국제 페스티벌 1등상 수상
- <마르실리오 피치노와 미적 정치> RAI 1 생중계
- <리카비> 로마 도큐멘티 극장에서 최우수 연출상 수상
- <토스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포르투갈 오비로스 오페라 페스티벌, <돈 카를로> 서울 예술의전당, <수녀 안젤리카> 이탈리아 보르고 콜로니 극장, 노바라 코치아 극장 등 다수 프로덕션에서 바로크 레퍼토리 연출
- 리스본 상 카를루스 국립극장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맥베스>, <마리아 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 트라비아타>, <극장 지배인>의 조연출 활동

주요작품

<돈 카를로>, <토스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포르투갈 오비도스오페라 페스티벌, <나비부인>, 이탈리아 카스텔로 디 롬바르디아 엔나 및 밀라노 스파치오 테아트로 89, <모나 비올리나>,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 등 다수 작품 무대와 의상 디자인 활동



조명 Lighting Designer | **마선영** Ma Seonyoung

• 2015년 뉴욕대학교 티시 예술대학 조명디자인 MFA 졸업

주요작품

[뮤지컬] <부처하난>, <리지>, <어쩌면 해피엔딩>, <등등곡>, <일테노레>, <셜록홈즈:앤더슨가의 비밀>, <멤피스>, <이프덴>, <스위니토드>, <아가사>, <번지점프를 하다>, <렌트>, <닥터지바고>, <타이타닉>, <드림걸즈> 외 다수

[연극] <클로저>, <울드위키드송>, <엘리펀트송>,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외 다수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맥베스>,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마하고니 도시의 변명과 몰락>, <오를란도 핀토 파초>

[창극/국악] 국립창극단 <리아>, <패왕별희>



안무 Choreographer | **마티아 아가티엘로** Mattia Agatiello

- 이탈리아 밀라노 파올로 그라시 예술학교 폰다치오네 치비카 공연예술학부 졸업
- 루신다 차일즈, 안토니오 카탈로, 마타니콜라, 마야 캐롤 등 안무가와 협업
- 2009년 현대무용단 파토리아 비타디노 공동 창단
- 2018년 프레미오 히스트리오 코르포 아 코르포상, 2019년 프레미오 인콘트로 콘 라 단차상, 프레미오 레테 크리티카상 수상, 2018~2020년 연속 'Festival del Silenzio' 프로젝트로 이탈리아 대통령상 대표 훈장 수상
- 2014년 <헤라클레스와 아켈로스의 결투>와 <아르미다>의 안무로 이탈리아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에서 프랑코 아비아티 특별상 수상
-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 피렌체 마조 피오렌티노 극장, 부다페스트 헝가리 국립 오페라, 리투아니아 국립 오페라 발레 극장, 아일랜드 웨스포드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델라 발레 디트리아 페스티벌 등에서 활동
- 2023년 연출가 프란체스코 미켈리와 협업하여 '이탈리아 문화수도: 베르가모와 브레시아' 프로젝트를 위한 오페라 <Raffa in the Sky> 참여 및 로마 오페라극장의 <토스카>, <투란도트> 참여
- 2023년 파토리아 비타디노(마티아 아가티엘로 공동 창단)와 도니체티 극장 재단이 공동 제작한 도니체티 페스티벌의 현대 오페라/퍼포먼스 <Lu OpeRave>의 연출 및 안무 참여
- 현) 피렌체 아카데미 델 마조 피오렌티노와 베르가모의 보테가 도니체티에서 젊은 오페라 가수 대상 '공연예술에서 바디 랭귀지 기법' 마스터 클래스 강의

주요작품

<뱀의 여인>, <청교도>, <열정>, <굴리엘모 라트클리프>, <Unraveled Heroes>, <0000000(IT)>, <Pour un Herbar>, <Le Brasi> 외 다수



분장 Hair & Make Up | **강대영** Kang Daeyoung

- 호서대 대학원 뷰티전공 박사
- 한국문화예술명인
- KBS 방송 분장대상, 제48회 대중상영화제 분장기술상, 2018 대중문화예술상 분장부문 등 수상
- 현) (주)한국분장 대표, 한국방송스타프협회 회장

주요작품

[오페라] <돈 조반니>,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나비부인>, <리골레토>, <토스카>, <라 보엠>,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죽음의 도시> 외 다수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투란도트>, <잃어버린 얼굴>, <오즈의 마법사> 외 다수

[연극] <햄릿>, <에쿠스>, <아마데우스>, <우어파우스트> 외 다수



부지휘 Assistant Conductor | **최정우** Choi Jeongwoo

-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지휘과 학사 및 석사 졸업
-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그란 카나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오더 국립 오케스트라, 브란덴부르크 주립 극장 오케스트라, 막데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교향악단, 포항시립교향악단,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지휘
- 2023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차세대 지휘자 선정
- 2019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BMI 국제 지휘콩쿠르 BMI Award 수상

주요작품

<오텔로>, <호프만의 이야기>, <장미의 기사>, <삼손과 데릴라>, <일 트로바토레> 외 다수



합창지휘 Chorus Master | **박용규** Park Yonggyu

- 명지대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육군사관학교 대동령초청 음악회 지휘
- 중국 길림 초청 <춘향전>, <리골레토>, 소극장 오페라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오페라 주-조역으로 활동
- 현) 신원 에벤에셀 합창단 단원, 인천온누리교회 지휘자, 오페라 전문합창단 Noi Opera Chorus 단장 및 지휘자

주요작품

국립오페라단 <마농>, <서정오페라 브람스>, <삼손과 데릴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맥베스> 외 다수 작품 합창지휘



협력연출 Associate Director | **조은비** Cho Eunbi

-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음악학사 졸업
- 플로리다 주립대 오페라 연출 석사 졸업
- 미국 피츠버그 페스티벌 오페라, 플로리다 주립 오페라 연출 역임
- 미국 버지니아 오페라, 뉴욕 놀스홀 음악 페스티벌 연출부 작업
- 국립오페라단 재연출 및 협력연출 작업,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콘서트 연출 작업
- 현) 한양대, 서울예고 출강, 오페라를 보는 새로운 시선 상주 연출

주요작품

<피가로의 결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인간의 목소리> 외 다수



협력안무 Associate Choreographer | **한재용** Han Jaeyong

- 서울예대 연기와 졸업
- 전 코딩공일아트랩 안무감독, 극단 창세 안무감독, 그랑발레아카데미 안무감독, 연 컴퍼니 안무감독
- 현) 아트컴퍼니 하늘 대표, 하늘 스튜디오 대표, 아트컴퍼니 연애 대표

주요작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박쥐>,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마술피리>, <투란도트>, <아이디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마탄의 사수>, <리골레토>
 [뮤지컬] <변신>, <마타하리>, <벤허>, <팬텀>, <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오페라 코치 Opera Coach | **정태양** Jeong Taeyang

-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 졸업
-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빌크로즈 아카데미, 브리튼-피어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선발
- 라 스칼라 극장, 코모극장, 파비아 극장,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RAI 방송 오케스트라, 호프 극장, 아프릴레 밀로 아카데미,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 내한, 평창대관령음악제, 계촌클래식축제, 줄라이 페스티벌, 마포 M 클래식 축제, 서울대 화요음악회, 세일 한국가곡 상설무대, 예술의전당 아티스트라운지,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등 활동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코치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주요작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비밀결혼>, <라 트라비아타> <팔스타프>, <헨젤과 그레텔> 외 다수



엘레나 Sop. Elena Sop. | **이화영** Lee Hwayoung

- 계명대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베니아미노 질리 오페라 아카데미아 졸업 (오페라 전공)
- 이탈리아 솔모나 극장에서 오페라 <수녀 안젤리카> 안젤리카로 데뷔 후 우수 오페라 극장에서 <라 보엠> 미미 역, <나비부인> 초초상 역, <아이디다> 아이디다 역 출연
- 마리아 카날리아 국제콩쿠르 1위, 프랑코 코렐리 국제콩쿠르 특별상, 발세시아 국제콩쿠르 특별상, 대구 성악콩쿠르 2위 입상
- 대한민국오페라대상(여자주역상), 대구국제오페라축제(대상), 금복문화상, 대구문화상 수상
- 현)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교수

주요작품

<운명의 힘>, 레오노라, <토스카>_토스카, <투란도트>_투란도트, <아이디다>_아이디다, <일 트로바토레>_레오노라 외 다수



엘레나 Sop. Elena Sop. | **홍주영** Hong Michelle Juyoung

- 추계예술대 성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오페라과, 브레샤 국립음악원,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 가곡 전문연주자과정(Master) 졸업
- 비나스 국제콩쿠르 2위, 베르디 국제콩쿠르 3위 입상
- 2011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 <라 보엠> 미미 역 출연
- 2012년 정명훈 지휘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미미 역 출연
- 2014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기획 <코지 판 투테>, 국립오페라단 <돈 조반니> 출연
- 2015년 독일 카를스루에 극장에서 <라 트라비아타> 주역, 국립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축제 <진주조개잡이> 한국 초연 주역 레일라 역 출연
- 2015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서울시립교향악단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동 콘서트 (정명훈 지휘) 협연
- 2016년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협연, 2017년 마카오 오케스트라와 협연
- 2017년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미미 역 출연
- 2018년 예술의전당 콘서트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백작부인 역 출연, 교향악축제 광주시립교향악단 협연
- 2024년 로열 오페라 하우스 프로덕션이자 카를로 리치가 지휘하는 예술의전당 기획 <오텔로> 데스 데모나 역 출연
- 현) 추계예술대 성악과 교수

주요작품

<라 보엠>_미미, <라 트라비아타>_비올레타, <피가로의 결혼>_백작부인, <진주조개잡이>_레일라, <오텔로>_데스데모나 외 다수



아리고 Ten. Arrigo Ten. | **김경호** Kim Kyungho

-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졸업, 베를린 국립음대(UDK) 석사 졸업
- 2011-2013 동양인 최초 베를린 슈타츠오페라극장 오피스튜디오 소속
- 2017-2019 독일 라이프치히 극장 전속가수
- 독일 도르트문트 극장에서 콘서트 오페라 <마농>으로 유럽 데뷔
-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페라(국립극장), 드레스덴 쟈퍼오페,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뉘른베르크, 다름슈타트, 카셀 오페라 극장, 벨기에 안트베르펜·겐트 오페라, 오스트리아 그라츠, 브레겐츠 페스티벌, 슬로바키아 국립극장, 에스토니아 비르기타 페스티벌,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등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
- 2016년 4월 음반사 낙소스(Naxos)를 통해 오페라 <마돈나의 보석>의 제나로 역 전곡이 수록된 'World premier recording' 발매

주요작품

<라 보엠>_로돌포, <라 트라비아타>_알프레도, <로미오와 줄리엣>_로미오, <리골레토>_만토바 공작, <파우스트>_파우스트 외 다수



아리고 Ten. Arrigo Ten. | **윤정수** Yun Jungsoo

- 연세대 성악과 졸업
-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오페라과 석사 졸업
- 스페인 몽세라 카바예 국제 콩쿠르 1위, 영국 리하르트 타우버 프라이즈 1위 입상
-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웨일즈 국립 오페라,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 벨기에 리에제 왕립 오페라, 덴마크 국립 오페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오페라, 스코티시 오페라, 아일랜드 콜크 국제 페스티벌, 영국 그레이지 페스티벌 오페라, 런던 오페라 홀란드 파크, 영국 오페라 노스, 롱보로우 페스티벌 오페라, 벅스턴 페스티벌 오페라 주역 테너로 15년간 활동 중
- 현) 추계예술대 국제학부 음악과 교수

주요작품

<라 보엠>_로돌포, <파우스트>_파우스트, <리골레토>_만토바 공작, <맥베스>_맥더프, <호프만의 이야기>_호프만 외 다수



몽포르테 Bar. Montforte Bar. | **이동환** Lee Donghwan

- 영남대학교 성악과,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졸업
- 베를린 도이체오페, 런던 코벤트 가든, 프랑스 툴루즈 극장,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등에서 당대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청교도>, <살로메>, <나비부인>, <라 보엠>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 벨레데레 콩쿠르, 베니아미노 질리 콩쿠르, 소나 왕비 성악콩쿠르, 툴루즈 국제 성악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국제 성악콩쿠르,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 등에서 입상 및 우승
- 최근 베를린 도이체오페에서 <나비부인> 사플레스 역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주요작품

<시몬 보카네그라>_시몬 보카네그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_엔리코, <라 트라비아타>_제르몽, <일 트로바토레>_루나백작, <리골레토>_리골레토 외 다수



몽포르테 Bar. Montforte Bar. | **노동용** Noh Dongyong

- 수원대 성악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오페라전공 졸업,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음악사 최우수 졸업,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국제콩쿠르 우승, 이탈리아 피에로 카푸칠리 국제콩쿠르 1위, 오스트리아 그란디 보치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스페인 발라구에르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이탈리아 이즈마엘 볼토리니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비본느 국제콩쿠르 1위, 프랑스 레오폴드 벨랑 국제콩쿠르 1위 등 다수 국제 콩쿠르 입상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나부코> 나부코 역, 이탈리아 베르디 오페라 페스티벌 <리골레토> 리골레토 역 데뷔, 프랑스 제랄드 필립 극장, 프랑스 아비뇽 오페라, 랭스 오페라, 비쉬 오페라, 클레르몽페랑 오페라, 마쉴 오페라, 생세레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타오르미나 고대 원형극장, 이탈리아 카프리 오페라 페스티벌 등 주요 극장 및 페스티벌 출연
- 현) 유럽에서 주역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

주요작품

<리골레토>_리골레토, <맥베스>_맥베스, <나부코>_나부코, <라 트라비아타>_제르몽, <돈카를로>_로드리고 외 다수



프로치다 Bass Procida Bass | **권영명** Kwon Young

- 연세대 성악과 졸업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석사 졸업,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악원 가곡과 석사 및 최고 연주자과정 졸업
- 이탈리아 시에나 키자나 아카데미 디플롬
- 멘델스존 국제 콩쿠르 1위, DAAD 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 입상
- 독일 비스바덴, 하노버, 니더바이언, 아우그스부르크 국립극장, 레겐스부르크 시립극장,
- 스위스 베른 국립극장 전속 주역 가수 역임 및 이탈리아 모데나, 레조 에밀리아 극장 주역 출연
- 현) 독일 슈베린 국립극장 전속 주역 가수

주요작품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_무스타파, <후궁으로의 도피>_오스민, <나부코>_자카리아,
<마술피리>_자라스트로, <피터그림스>_스왈로우 외 다수



베똬 Bass Bethune Bass | **최공석** Choi Kongseok

- 연세대 성악과 졸업
- 영국왕립음악원(RAM) 오페라과 석사, 독일 쾰른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졸업
- 리차드루이스 콩쿠르, 블리스부에스트 콩쿠르 우승, 마르첼로 조르다노, 마르첼로 조르다니, 라인스베르크 콩쿠르 입상
- 독일 뤼벡시립극장 오픈스튜디오 역임, 브라운슈바이크 시립극장, 라인스베르크 야외오페라, 본 필하모닉 협연 등 독일 유수의 극장에서 활동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등 국내 무대에서 주·조역으로 활동
- 연세대, 전남대, 경희대 강사 역임
- 현) 단국대, 명지대 출강,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주요작품

<파우스트>_메피스토펠레, <투란도트>_티무르, <사랑의 묘약>_돌카마라, <피가로의 결혼>_피가로,
<토스카>_안젤로티, <세빌리아의 이발사>_바르톨로 외 다수



보드몽 Bass Vaudemont Bass | **박의현** Park Euihyun

- 세종대 음악과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2013년 독일 아헨시립극장 <오르페우스와 마우리디케> 플루토 역 데뷔
- 2016년 독일 바그너협회 장학생 선정
- 2020년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 자라스트로 역으로 국내 무대 데뷔
- 2020년 서울시오페라단 <세빌리아의 이발사> 돈바질리오 역 데뷔
- 독일 아헨 시립극장, 트리어 시립극장 객원 솔리스트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서울대 성악과 출강

주요작품

<마술피리>_자라스트로, <피가로의 결혼>_바르톨로, <세빌리아의 이발사>_돈 바질리오,
<투란도트>_티무르, <리골레토>_스파라푸칠레 외 다수



니네타 M.Sop. Ninette M.Sop. | **김세린** Kim Saelin

- 경희대 성악과 졸업
- 뉴욕 맨하탄 음악대학원 석사 수석 졸업, 전문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최종 성악 최고연주자 과정입학 및 전액 장학 졸업
- 아이젠베르크-프리트 협주곡 콩쿠르 1위, 프리미어 오페라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유니버설 음악 콩쿠르 2위 등 다수의 콩쿠르 입상
- 2017 이탈리아 트렌티노 뮤직 페스티벌 <리날도>의 리날도 역으로 데뷔 후 유럽, 미국에서 주역으로 활동
- 국립합창단, 서울시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보령시립합창단 등과 모차르트 <레퀴엠>, 헨델 <메시아>, 하이든 <넬슨미사>, 비발디 <글로리아>, 더글라스 콕스 <미사>, 말러 <교향곡3번>, <방향하는 젊은 이의 노래> 등 솔리스트로 협연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주요작품

<신데렐라>_안젤리카, <카르멘>_카르멘, <리날도>_리날도, <알치나>_루제로,
<세빌리아의 이발사>_로지나 외 다수



다니엘리 Ten. Danieli Ten. | **강성빈** Kang Seongbin

- 단국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오페라과 재학 중
- 영산음악콩쿠르 전체 대상
- 한국가곡대축제 학생부 최우수상
- 난파음악콩쿠르 입상
-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청년교육단원 5기 수료

주요작품

<라 트라비아타>_알프레도, <라 보엠>_로돌포, <안나 볼레나>_퍼시, <마탄의 사수>_막스,
<박쥐>_아이젠슈타인



테발도 Ten. Tebaldo Ten. | **박세진** Park Sejin

-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2022 수리음악콩쿠르 대학부 3위
- 국립오페라스튜디오 청년교육단원 5기 수료

주요작품

<호프만의 이야기>_호프만, <박쥐>_아이젠슈타인



로베르토 Bar. Roberto Bar. | **정제학** Jung Jehak

- 한양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및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석사 최고점 졸업
- 세일한국가곡콩쿠르, 광주성악콩쿠르 입상
-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주·조역 출연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한양대 성악과 출강 및 KAN엔터테인먼트 소속가수

주요작품

<장미의 기사>_파니날, <마술피리>_파파게노, <피가로의 결혼>_피가로, <사랑의 묘약>_벨코레, <살로메>_군인 외 다수



만프레도 Ten. Manfredo Ten. | **윤찬영** Yoon Chanyung

- 서울예고 성악과 졸업
- 경희대 음악대학 성악과 학사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비엔니오 졸업
- 에우테르페 국제성악콩쿠르 1위, 벨기에 라 로세 안 알데네 국제성악마스터클래스(테너 Marco Iezzi) 및 콩쿠르 2위, 페사로 로시니 국제성악콩쿠르 3위, 피에트로 몬지니 국제성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 밀라노 국립음악원 성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 산타 잔나 베레타 국제성악콩쿠르 파이널리스트
- 2019년 이탈리아 스타카노 카스타놀리 극장에서 지휘자 이든과 <라 보엠> 로돌포 역으로 데뷔
- 2021년 이탈리아 키에티 프란카빌라 알 마레에서 <라 트라비아타> 알프레도 역, 2021년 이탈리아 밀라노 벨로 극장에서 <사랑의 묘약> 네모리노 역(지휘자 이든), 2021, 2022년 파르코 델라 무지카 극장(로마), 플라비오 베스파시아노 극장(리에티)에서 지휘자 이자벨라 암브로지니와 함께 <잔니 스키키> 리누치오 역 출연
- (현) 국내외에서 전문 성악가로 활동 중

주요작품

<사랑의 묘약>_네모리노, <라 트라비아타>_알프레도, <잔니 스키키>_리누치오, <라 보엠>_로돌포, <호프만의 이야기>_나타나엘 외 다수

코리아콥오케스트라 Korea Coop Orchestra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코리아콥오케스트라는 전통적인 오케스트라의 위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연주활동을 추구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10월 창단과 동시에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오페라 <아이다 1963>에 참여했고, 2017년에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동시대 공연예술 페스티벌에서 독일 베를린 3대 오페라극장 중 한 곳인 코미세 오페라 베를린의 대표작 <마술피리>에 출연했다. 국립오페라단과는 2015년부터 <루살카> 등 정통 오페라에서부터 <빨간바지> 등 창작 오페라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함께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정기공연으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를 무대에 올렸다. 유니버설발레단과는 2021년 정기공연 <돈키호테>, <지젤>, <호두까기 인형>에 이어, 2024년에도 다양한 작품으로 발레 애호가들을 만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용인 포은아트홀의 마티네 콘서트에 출연하여 클래식 음악 저변확대에 기여했고,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와 <토요콘서트>, 고양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무대에도 오르고 있다.

<픽사 인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드림웍스 인 콘서트>, <미녀와 야수 인 콘서트>, <코코 인 콘서트> 등 애니메이션 콘서트를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해리 포터 인 콘서트>, <반지의 제왕> 등 영화 음악을 통해서도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대표 라성육 악장 임경묵

제1바이올린 수석 김나형 | 부수석 박소영 | 김예인 임미선 박성민 임후정 이찬주 차시현 안우리 권도연 한새날 김혜론 곽태현
제2바이올린 수석 최영미 | 부수석 허현 | 이루다 고서연 박가람 채진성 박서령 노민희 문하림 김동윤 최희은 남윤일 **비올라** 수석 조형국 부수석 노원빈 김영주 김연수 권재미 소현진 양수정 박하늘이 박혜정 김경은 **첼로** 수석 이현지 | 부수석 황지연 | 이승연 김태리 김유미 박예현 배문정 **콘트라베이스** 수석 라성육 | 부수석 최승연 | 이채희 김혜린 이가람 **플루트** 수석 박태희 | 부수석 신준대 **오보에** 수석 서상백 | 박사무엘 **클라리넷** 수석 김민이 | 부수석 김순희 **바순** 수석 홍성찬 | 부수석 이경진 **호른** 수석 이용규 박은지 | 부수석 김서현 | 노정아 **트럼펫** 수석 이인용 | 한성석 남태민 빈상욱 **트롬본** 수석 장영원 | 김지섭 **바하 트롬본** 백준수 **튜바** 이형래 **팀파니** 수석 이정수 **타악기** 윤지현 유요한 김기홍 정제원 **하프** 수석 김로희 **사무곡** 허은채 안혜진 정한나



노이오페라코러스 Noi Opera Chorus

<Noi Opera Chorus>의 Noi는 이탈리아어로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되어 기쁨과 희망의 음악을 전한다”는 모토로 활동 하고 있으며, 오로지 오페라를 향해 가득 채워진 열정을 발판으로, 실력있는 전문 성악가들이 모여 창단 이후 꾸준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 모든 공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오페라 합창의 격을 높이고 있는 “우리 Noi”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오페라 전문 합창단이다.

2020년 예술의전당 기획 <굿모닝 독도>를 시작으로 국립오페라단 정기오페라 <한국 오페라 베스트 컬렉션>, <마농>, <레드슈즈>, <서정 오페라 브람스>, <삼손과 데릴라>,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맥베스> 예술의전당 기획 <봄을 여는 소리>, <굿모닝 가곡>, 콘서트 오페라 <가면 무도회>,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특별음악회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 KBS교향악단 말러 2번. <투란도트>, <노르마>, <오텔로>. 세아이 유행문화재단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10주년 오페라 갈라콘서트>, <청교도>, <리골레토>, 성남문화재단 <세비야의 이발사>,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묘약>, <돈조반니>,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아트센터인천기획<리골레토>, <토스카>, <돈조반니>, 서울문화재단<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롯데문화재단 게임콘서트. 세종문화회관 해리포터와 아즈반의 괴수.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창작오페라 <박하사탕>, <길 위의 천국>, <빛아이 어둠아이>, <장충>, <이상의 날개>,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및 2024 교향악축제 <쇼스타코비치 13번 비비아르>, 강릉시향 정기연주회 <베르디 레퀴엠> 등에 출연하며 오페라와 미사, 게임, 영화 콘서트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다.

모두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관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단장 겸 합창지휘 박용규 음악코치 최요한 총무 이상철

소프라노 김유영 김지호 김희정 박다현 박서현 박지현 이나라 이다영 이문경 이수 이은혜 차경희

알토 김예원 문다솜 서지선 신서윤 이예빈 이재림 장솔지 정예영 조수민 진혜진 홍성경

테너 김재민 김재욱 김지웅 이산 이상철 이재환 이종민 최찬양 한훈욱 허동영 강은호 김동혁 김동현 김소명 박수환 석승현 이수만 장윤창 최광준 최영원

베이스 광도영 광용석 김승민 김재훈 김희석 박시문 서성현 심동성 이형민 전성현 김명환 김성훈 김준혁 김현욱 심성찬 유지형 윤상원 이수현 이의재 최권영 최상우 한영섭



코드공일아트랩 CODE 01 ART LAB

코드공일예술연구소는 2020년창단하여,코드공일컴퍼니,코드공일에이전시,3길8TV,코드공일아트랩으로구분되며,컨텐츠제작부터매니지먼트,그리고예술교육까지다분야엔터테인먼트사업을진행하고있다.주요작품으로는뮤지컬<반고흐와해바라기소년>, <6411>, <야조>, <킹키부츠>, <닥터지바고>, <서편제> 등 뮤지컬의 아역배우 캐스팅을 담당했다. 연극 <카프카의 변신>, <문제없는 인생>, <바바라컬렉션>, <라이겐>, <제국의 일상>, <염도>, <설해목>, <Falling up>, 뮤지컬 <디스크리스마스>, <살아남은자들> 음악극 <수레바퀴> 외 다수 작품을 기획 연구하며 미디어 콘텐츠 분야까지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코드공일아트랩 김민경 한재용 박상준

무용수 김진 이예나 이정은 임상희 장예지 한서희 박수현 차형도 박희수 임채훈 강현준 김차빈



제작진

Production Staff

지휘	세바스티안 랑 레싱
연출	파비오 체레사
무대	티치아노 산티
의상	프란체스코 본디
조명	마선영
안무	마티아 아가티엘로
분장	강대영
부지휘	최정우
합창지휘	박용규
오페라코치	정태양
피아니스트·자막	최요한
협력연출	조은비
협력안무	한재용
무대감독	하동욱
조명감독	김희선
미술감독	김유정
의상감독	신원선
무대조감독	김상우 황대훈
조명조감독	강명석
미술조감독	유다미
조연출	송우미 김창영
통역	최유진

무대팀	SBZ(에쓰비지) 대표 박규만 팀장 김은수 박규만 설요셉 고희주 김인렬 김만규 이상헌 김승미 홍영웅 강수민
조명팀	배러댄비포 대표 김남정 팀장 임영직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 진영대 이정원 주 겸 양지훈 구은홍
분장팀	(주)한국분장 대표 강대영 팀장 정윤경 이은경 김숙자 최지애 지역채 박지안 이정우 강윤채 서지호 임정언 신은서
의상팀	A connection 대표 장은아 팀장 장은아 김은지 이지혜 고수아 유형석 이연재 류정민 신유진
소품팀	김윤희
무대 제작	(주)원더스테이지 대표 김경희 기술 유길성 유명식
의상제작	(주)이재경무대의상 대표 이재경
특수효과장비	(주)시너지이팩트 대표 하동선 황이택 이재민 김규영
조명장비	(주)아트원플러스 대표 원유섭

(재)국립오페라단

Korea National Opera

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
사무국장	공석
경영관리팀	팀장 서상화 김선미 백지훈 백선미 김진희 김유진 신윤경
공연기획팀	팀장 정훈진 박화경 민지현 이준영 빈수진 정지은
문화사업팀	팀장 이정화 이나겸 이윤아 이현경 이수연
교육사업팀	팀장 전혜진 강정은 문대균 박은하 김지홍 한민채
홍보마케팅팀	팀장 강재선 이승진 김수형 김미지 박신혜
무대예술팀	팀장 하동욱 김희선 김동일 김유정 김현진 박혜영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팀장 김민정 정유호 박형기 박선영 한규리 박새별 강지윤 김명진
교육사업팀	팀장 이효진 김유리 박지윤 최서운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이효섭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이철훈 장성훈 오준호
17기 오페라필	강서운 곽현진 구다은 권승현 김경준 김소화 김유림 김지현 김채영 박소현 박지승 엄채윤 이동규 이서진 이수진 이승찬 이여진 이지현 이채원 임채희 전지민 조승아 최소은 최아은 최자현 추서연 황주연
9기 오페라팬	권혜미 김수정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이해원 이혜인 임수진 장성민 장조휘 정연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GWANGJU METROPOLITAN OPERA
광주시립오페라단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11. 1 Fri. 19:30 - 2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최 철 / 지휘 송안훈 / 연출 이경재

비올레타 Sop. 탁주연, 김희정 / 알프레도 Ten. 이재식, 강동명 / 제르몽 Bar. 조재경, 공병우 / 플로라 M.Sop. 서미선 / 가스통 Ten. 김진우

듀발 Bar. 김희열 / 도미니크 Bass 나규보 / 그랑빌 Bass 김일동 / 안니나 M.Sop. 황지혜 / 주세페 Ten. 이요한

디오오케스트라 / 광주시립합창단 / 광주시립발레단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광역시,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오페라단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오페라단

Void 3003_115x100cm_2024
Nam Tchun-Mo

